

5·18 조작·왜곡 몸통 ‘육군 80대책위’ 있었다

광주청문회 대비 88년 출범... ‘5·11대책위’ 만들어 계획 실행 교본 ‘대검 휴대’ 조항 삭제 지시... 정부차원 왜곡조작 건의도 희생자 숫자·발포 시기 날조 등 국방부 자료서 새롭게 드러나

5·18민중항쟁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한 군 조직의 실체가 새롭게 드러났다.

1988년 2월16일 꾸러진 ‘육군80대책위원회’(이하 80대책위)와 같은해 7월11일 꾸러진 ‘511상설대책위원회’(511대책위)다. 80대책위는 군 관련 대부분 자료를 왜곡했고 511대책위는 그 조작 자료를 넘겨받아 국회에서 열린 광주청문회 거짓 증언의 근거 자료를 작성했다. 이들은 시민 등 희생자 숫자, 계엄군 집단발포·진압 방법 등 5월의 핵심 현안을 조작·은폐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국방부가 조사·정리한 ‘511연구위원회’ 관련자료 검증 결과 분석에 따르면 5·18 관련 왜곡을 주도한 기관으로 80대책위와 511대책위가 등장한다.

이들 조직은 그동안 대표적 5·18왜곡 기구로 알려진 ‘80위원회’(1985)와 ‘511연구위원회’(1988)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군 조직이다. 80대책위에서는 육군 참모차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실무위원장으로 육군 민심부장이 참여하는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군 관련 증거를 조작·사실을 왜곡했다.

80대책위는 국회 광주청문회를 겨냥해 자료수집·분석·정리(왜곡)·예상질문서 작성·증인선정·예행연습 등을 주도했다. 또 국방부 또는 그 이상의 부서에 대책위

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등 정부차원의 5월 왜곡조작을 건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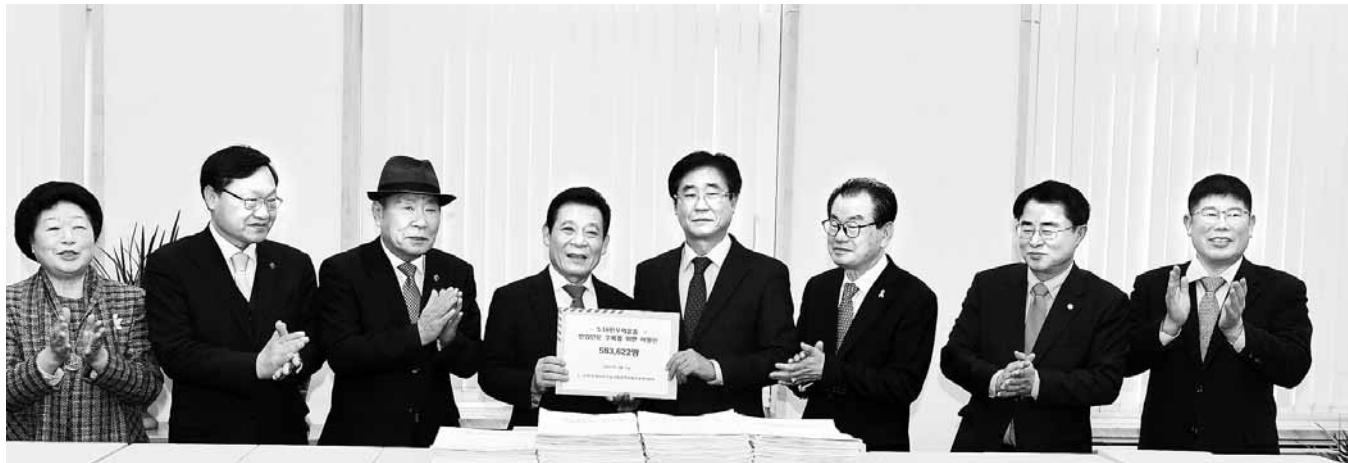
80대책위 등은 국방부, 보안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 보유한 5·18 핵심 자료 20종 94건을 수집·분석·보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5월 진실을 날조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 조직들은 계엄군이 대검으로 민간인을 살상했다는 사실을 없애기 위해 시위진압작전의 교본(중정작전교리)에 적시된 ‘대검 휴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희생자 검사에서 대검에 의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기로 방침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엄군의 사격 시기 항목을 삭제(비공개 자료로 보관)할 것을 지시하고 사망자 숫자는 검시 결과를 기초로 안기부에서 재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집단발포시기와 5월 희생자 숫자도 왜곡한 정황이다.

이들이 조작한 자료는 88년 11월 국회 광주청문회 참가자의 위증에 지침이 됐다. 군 관계자 대부분은 광주청문회와 1995년 검찰 신문에서 대검 사용을 부인했지만, 실제 검찰 수사에서는 대검에 의한 사망자와 피해자가 있었음이 사실로 인정됐다.

80대책위는 국방부 또는 그 이상의 부서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사실상



5·18 헌법전문 수록 촉구, 583,622명 서명

5·18 헌법전문 수록 대국민 서명부 전달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서울 국회본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대국민 서명부 전달식’에 참석해 황열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례 알함인권도서관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윤 시장, 황 비서실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최경환·김경진 국회의원. <광주시 제공>

진실의 은폐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8년 5월11일 국방부 ‘국회대책특별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실무를 맡은 511연구위원회가 꾸러졌다. 국회연구위와 511연구위는 협의체 조직으로서 왜곡의 실질적인 업무는 같은해 7월11일 설치된 511대책위가 주도했다.

511대책위는 상황일지·영상 등을 분류

하는 ‘계엄반’, 상황일지 수집·분석·평가, 쟁점사항 답변서 작성을 맡은 ‘작전반’, 증언대상자 증언조사·분석을 담당할 ‘조사반’ 등 총 6개반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광주사태 관련 근거자료’를 작성했으며, 부대투입 일시 및 장소, 외곽출수, 부대복귀, 정호용 장군 광주방문 등에 관한 군 자료를 정리하는 등 사실 왜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초사격 근거, 자위권 발동 하달 순서 등 5·18을 조작하는 체계적인 시나리오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5월 단계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80대책위와 511대책위가 5·18 왜곡의 몸통이었다”며 “추후 꾸러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이들의 활동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1 연구위’ 참여 서주석 국방부 차관 광주 방문 거듭 사과

5·18왜곡조직인 ‘511 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헌법만에 다시 광주를 방문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11일 5·18기념재단·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서 차관은 지난 10일 광주 5·18기념재단을 찾아 511연구위원회 관련 자료를 재단에 전달하고 511 연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국방부에 요청하면 관련자료를 모두 전달하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5월 단체에 전했다. /김용희기자 kimyh@

‘5·18 회고록’ 전두환 두차례 소환 불응... 꼬리자르기 나섰나

헬기사격 발뺌·집필 책임 전가

광주지검, 조사 방법 등 고민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모두 거부했다.

전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수사대상인 ‘헬기총소사’ 부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회고록 집필도 책임정리자인 민정기 전 비서관이 한 만큼 진술할 사항이 없다며 사실상 ‘꼬리자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민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회고록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조사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1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회고

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최근 두 차례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회고록 집필 책임정리자인 민정기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집필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측은 건강상 이유와 집필책임자가 민 전 비서관이라는 점, 회고록 내용이 기존 기록 등에 바탕을 뒀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측은 검찰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회고록 중 피의사실, 즉 헬기 기총소사 부분은 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일도 없다”며 “정부의 공적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고, 그 집필도 책임정리자인 민정기 전

비서관이 작성한 것이므로, 전 전 대통령이 피의사실 부분과 관련해 진술할 사항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성직자인 조 신부가 의도적으로 허위증언을 한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더 필요한 단계로, 조사방법이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건을 결론 내릴 상황도 아니다”며 “4월께 국방부 5·18특조위의 대통령 보고 이후 완결된 자료가 확보되면 의미있는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를 허위 주장을 한 성직자로 비난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 LH아파트 현장서 외국인 근로자 추락 사망

함평마을권 함평 향교지구 LH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함평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함평군 대동면 LH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 근로자 A(37)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119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7~8층에서 일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장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날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작업중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한편, LH는 지난 1월부터 내년 8월까지 대동면 일대에 7~8층 3개동 150호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평=황은학기자 hwang@

광주 고층아파트에서 화재 거동 불편 70대 노인 숨져

광주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불이 나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숨졌다.

11일 새벽 4시 39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20층 김모(72)씨 집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옥실 전체와 거실 일부를 태운 뒤 20여 분만에 진화됐으나 김씨가 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래층 주민은 위층에서 물이 흘러 내리고 약하게 타는 냄새가 나자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불이 날 당시 집 안에는 김씨 혼자 있었으며,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 불이 번지거나 연기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아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수년째 암 투병 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학 여자화장실서 몰카 광주북부경찰 수사 착수

광주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지역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학생이 발견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거둬들인 카메라에는 화장실 이용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도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두고 간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명의 도용 돈 쟁권 이통사 직원들

순천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 종사자들이 고객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 유심칩을 재발급받은 뒤 핸드폰 소액결제로 수천만원의 돈을 챙겨 경찰서행.

11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통신사 대리점 직원 A(25)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고객 4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유심칩을 재발급 받은 뒤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하는 수법으로 76차례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바꿨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스마트폰이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때 즉시 해당 이통사 A/S에 문의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당부.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 건물 : 1,477,64㎡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 건물 : 728,97㎡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급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
· 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 건물 :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 건물 :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층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접법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 건물 : 3,998,33㎡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 340,4㎡ 건물 : 510,09㎡
감정가 : 721,968,950원 최저가 :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 27,403㎡ 건물 : 1,454,36㎡
감정가 : 1,706,257,600원 최저가 :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 2,329㎡ 건물 : 844,08㎡
감정가 : 1,024,812,000원 최저가 :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 3,319㎡ 건물 : 2,480,7㎡
감정가 : 3,024,288,500원 최저가 :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 3,673㎡ 건물 : 3,037,52㎡
감정가 : 3,744,229,960원 최저가 :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